<컴패션 뉴스레터 1960 년 11-12 월호>

보육원의 놀라운 부흥

며칠 전 저는 베다니 팜 보육원(Bethany Farm Home)의 박 원장님(Mr. Pak)에게서 멋진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작년에 거리에서 데려온 거지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걸하고 훔치거나 폐지와 잡동사니를 팔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성경 교육과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생님들이 보여준 본보기가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박 원장님은 이러한 부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9 월 8 일에는 자원봉사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아침과 점심을 금식하는 금식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보육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간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회 초반부터 저희는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회가 저희 모두에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11 일까지 3 일을 더 연장하고, 집회의 목적을 아예 "보육원 부흥회"로 변경했습니다.

9 일 밤, 저녁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잠이 들었을 때, 2 호 보육원의 직원 한 명이 당장 와보라며 저를 깨웠습니다. 자정 직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고학년 소년 세 명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어린이들은 모두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 소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니,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이어서 1 번 박정남(Pak Jung Nam), 67 번 도재현(Do Jae Hyun), 66 번 정순호(Jung Soon Ho) 어린이가 회개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는 소년들의 담대함에 깊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죄를 회개하는 집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인도에 따라 어린이들은 하나둘씩 일어나서 과거의 죄를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직원들도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개가 계속되고 밤이 깊어 모임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간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더 있는지 물었는데, 놀랍게도 반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11 일까지 간증문을 글로 써서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집회를 마쳤습니다. 때는 밤 11 시였습니다.

어린이들은 기쁨에 넘쳐 소리치고 찬양 부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린이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개입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11 일 주일 밤까지 총 62 명의 어린이가 회개했고, 회개한 항목은 총 697 건이었습니다. 강도 1 건과 절도가 약 500 건 그리고 나머지는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강도와 절도 사건에 연루된 총금액은 약 2,798,470 환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인들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어린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번 부흥을 통해 목사님께서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 하시는 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놀라운 사역에 더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어린이들이 찬송가 208 장 "나는 구원받았네"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덕분에 저희 보육원이 더 발전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몇몇 고학년 소년들과 저의 사진을 동봉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 세상으로 나가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 주님의 종, 박흥국(Pak Hung Kook) 원장 올림

여러분! 이 보육원 한 곳에서 62 명의 소중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에서 구걸하고 물건을 훔치는 수백 명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가르치고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자를 얻을 것이지만, 건물과 가구 또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쓸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자재와 부지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5,000~10,000 달러면 80 명의 어린이를 위한 완전한 건물을 짓고, 내부에 가구를 갖출 수 있습니다! 40 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집이라면 약 절반의 금액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 **오래도록 남을 멋진 기념관**

저희는 교회나 개인이 이러한 초기 자금(전체 또는 일부)으로 그러한 프로젝트를 맡을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는 보육원의 이름을 헌정한 교회나 개인의 이름으로 기꺼이 명명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원 건설 현장을 담은 스토리를 흑백 또는 컬러 슬라이드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보육원과 연락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사역 및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지원 외에는 재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거리에서 데려올 수 있는 보육원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유익한 선교 사역입니다. 이제 다 자란 수많은 고아들이 한국의 복음 사역과 다른 영역에서의 지도자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목사가 되고 두 명은 해병대 군목이 되었습니다. 저희 고아들은 평균적으로 한국의 평균 학생들보다 확실히 더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몇몇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보육원을 짓는 것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며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축 자금의 전부를 후원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것을 유언장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간 후에도 이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는 이번 가을에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은 천국으로 미리 보내는 것입니다!

(사진)

이번 가을에 건설 완료 예정인 완전히 새로운 보육원 건물입니다. 자금은 스완슨 복음 전도회 (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 후원자들이 제공했습니다. **컴패션 보육원(Home of Compassion)**이라는 이름으로 60 명의 소년을 돌볼 것입니다. 총비용은 약 5,000 달러입니다!

신규 [1]RCA 레코드 출시

스완슨 목사 부부가 지난봄 부산의 가든 오브 이든 보육원(Garden of Eden Orphanage)을 방문했을 때 32 명의 합창단이 영어로 외운 13 곡을 불렀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영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스완슨 부부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놀라운 하모니와 높은 음악적 수준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최고의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녹음이 이루어졌습니다.

[1]RCA (RCA Records): 1901 년 '빅터 토킹 머신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음반사로, 현재는 소니(SONY) 뮤직 산하의 미국 음반사임(https://ko.wikipedia.org/wiki/RCA_%EB%A0%88%EC%BD%94%EB%93%9C).

RCA 빅터(Victor) 사는 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찬송가, 흑인 영가, 민요, 크리스마스 캐럴을 포함하여 12 곡이 수록된 10 인치 크기의 $33^{1/3}$ RPM 의 고품질 LP 레코드를 제작했습니다! 앨범 이름은 <한국 고아들의 목소리(The Voices of Korean Orphans)>입니다. 다음은 노래 리스트입니다:

- 1 면: 1) 스완슨 목사의 소개가 포함된 한국 민요, 아리랑; 2) 신자 되기 원합니다(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3) Steal Away; 4) Swing Low, Sweet Chariot; 5) Work for the Night is Coming; and, 6) Ninety and Nine.
- 2 면: 7) 반짝반짝 작은 별; 8) 올드 블랙 조; 9) 징글벨; 10)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 저 들 밖에 한밤중에; 12)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분도 어린이들의 노래에 놀라실 것입니다. 최근 스완슨 목사가 테이프에서 한 곡(신자 되기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을 재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귀여운 솔로곡과 듀엣곡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의 곡들이 있습니다.

- **음반을 받으려면?**

11 월 1 일이면 우편 발송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 음반은 어디서도 구입할 수 없지만, 이 안내를 읽으신 후 새로운 후원자를 찾는 데 기여하신 분들께는 무료로 한 장씩 발송해 드리며, 새로 후원자가 되신 분에게도 음반을 보내 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에 실린 합창단의 사진도 함께 포함됩니다. 또한 현재 후원자로서 다른 어린이를 추가로 후원하기로 결정하신 경우에도 무료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릴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집에서 저희 어린이들이 부르는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어린이가 받게 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여러분이 그들의 후원자로 "엄마, 아빠"가 되었다는 멋진 소식일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퍼레이션 롱 언더웨어(OPERATION LONG UNDERWEAR), 참여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육원 어린이들을 위해 겨울 의류 후원금을 보내기에 너무 늦지 않았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실 수백 명의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소식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어린이를 위한 비용은 5 달러이며,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각각 10 달러입니다. 이것은 신발 2 켤레, 양말 2 켤레, 두꺼운 긴 속옷 2 벌과 교복 한 벌(미취학 어린이들에게는 다른 옷)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는 보육원에 여러분의 이름을 즉시 알려줄 것이고 여러분은 보육원 원장님으로부터 새 옷을 입은 어린이 사진과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사진)

이 건물은 부산의 힐사이드 크리스천 보육원(Hillside Christian Orphanage)에 있는 70 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지어졌으며, 완전히 새로운 부지와 건물입니다. 스완슨 목사가 지난봄 한국에 있는 동안 헌납되었으며, 총비용은 약 10,000 달러, 그리고 토지 비용으로 1,600 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 임시 막사 형태의 건물에 살았던 어린이들은 이제 이 멋진 새 보육원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 중요 공지

거의 모든 후원자가 1 년 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후원을 계속하기를 희망합니다. 후원자가 사진과 양육 기록 등을 당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후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희에게 통지하실 필요는 없으며 월간 후원금을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단해야 하는 경우 서류를 반환해 주셔야 새로운 후원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사진)

- 이 어린이들은 모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진행된 성경 암송대회에서 받은 상장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보육원은 매년 방학 기간 동안 성경 암송대회를 진행합니다.
- 김복순(Kim Bok Soon) 어린이는 관대하고 사려 깊은 후원자님 덕분에 눈 속에서도 따뜻하게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포를 보낼 때마다 원장님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어린이의 편지와 함께 여러분께 보내 드립니다.

특별한 후원자 필요

그레이스 포레스트 보육원(Grace Forest Orphanage)의 훌륭한 18 세 소년 박환전(Pak Hwan Jon)군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 목사가 되어 우리 국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는 내년 4 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보육원의 원장님이 그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달에 8 달러로 후원할 수 있으며, 그가 신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수업료, 식비, 숙박비 등의 총비용은 한 달에 15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정말 멋진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현금 선물에 관하여

1) 어떤 형태로든 한국으로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보육원과 저희에게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한국법에 위배되며 분실 또는 도난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저희 시카고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2) 여러분의 후원 어린이를 위하여 지정된 돈을 저희 시카고 사무실로 보내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며,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후원 어린이가 아닌 보육원 전체를 위한 추가 기부금을 보내고 싶으시면 기꺼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5 달러를 기부하시면 여러분의 어린이를 위한 성경책과 찬송가 구입을 위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 직원에게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어린이가 아닌 보육원을 위하여 트랜지스터라디오, 타자기 등과 같이 특별한 물건을 위해 돈을 보내려는 경우,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오랜 경험이 이 모든 원칙의 지혜를 증명합니다.

소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 장 16 절이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 미처 닿지 못한 소년들

이 다 큰 소년들은 구걸이나 도둑질, 아니면 폐지, 잡동사니 등을 주워 팔며 살아야 했던 한국 전쟁 고아들입니다. 이 소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짐승처럼 노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기독교 보육원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 구원을 받다

이전에 자신도 거지였지만 지금은 놀랍게 구원을 받은 서(Mr. Suh) 원장님이 데려온 두 명의 어린 소년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집도 없이 구걸하다가 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오, 이 소년들이 얼마나 굶주림과 질병, 열병, 외로움, 절망을 겪었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전에 결코 사랑의 말을 듣거나 행동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 빛나는 얼굴!

이제 이 소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거나 울며 떨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화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들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수백 명에게 도달할 수 있지만 내일은 **너무 늦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어린이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린이 한 명 이상을 후원함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단 8 달러(하루에 단 26 페니)로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의 주일학교, 성경 수업, 청소년 그룹, 여전도회 등이 어린이 한 명을 완전하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또는 친구에게 한 어린이를 후원하는 데 각자 4 달러씩 내는 공동 후원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유상 교육인 학비를 포함하여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더 많은 어린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수백 명의 새로운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양아들을 빨리 얻는 방법

- 글: 하드 택 피트(Hard Tack Pete)

태평양 연안에서 내륙으로 몇 마일 떨어진 깊은 덤불 속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아들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던 막내아들마저 노인의 사랑하는 손자를 데리고 차를 몰고 떠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편지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인은 고아가 된 인디언 시골 소년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착한 어린 소년들을 무척 귀여워했고, 종종 아버지와 함께 메추라기와 토끼를 사냥하러 덤불로 오곤 하는 어린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이 황무지에서 길을 잃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교는 충실히 돕는 데 반해 국내 선교를 위한 자금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백인들이 피부색이 짙은 소수 민족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조장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해 읽은 노인은 [2]크리스천 헤럴드(Christian Herald)에 광고가 실린 두 개의 자선 단체에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세상의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 인디언 소년이 있다면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계기로 할아버지는 어린 소년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후원금은 기꺼이 긴급한 필요에 사용되었지만, 아쉽게도 도움이 필요하며 꿈을 좇고자 하는 인디언 소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달 도움을 청하는 다양한 호소문을 읽은 그는 [3]어메리칸 미션 투 그릭스(The American Mission to Greeks)를 통해 외국 소년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는 의지가 강한 소년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을 돕고 격려하기 위한 양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행운이 따랐습니다. 약 두 달 후, 그리스 마케도니아(Macedonia)의 카테리니(Katerini)에 있는 크리스천 에반젤리컬 미션(Christian Evangelical Mission) 학교에 다니는 열정적인 어린 소년의 사진과 짧은 양육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특히 책을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소년으로, 딱 적합한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농장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그의 첫 후원 소년 코스타키스 시오나키데스(Kostakis Sionakides)를 만난 방법입니다.

몇 달 후, [4]기독교아동복리회(Christian Children's Fund, CCF)는 후원자이자 어른 친구가 필요한 한 고아를 한국 부산의 보육원인 애아원(Ae A Won)에서 선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기독교아동복리회(CCF)를 통해 인디언 소년을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역 입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후원금은 도움이 가장 시급한 지역인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인디언 소년을 찾는 대신, 그를 양할아버지로 받아들여 편지 쓰고 기도해 주고 싶다는 김정건(Kim Jung Kun) 소년의 사진과 그의 몇 마디가 적힌 카드를 받았습니다. 김 군은 우편으로나마 노인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나의 할아버지로 입양하고, 언제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

[2]크리스천 헤럴드(Christian Herald): 복음주의 기독교와 관련된 주제를 국내외에서 인도주의적 대의에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도하는 미국 주간 신문(1878~1992).

[3]어메리칸 미션 투 그릭스(The American Mission to Greeks): 현 AMG International, 그리스 복음화를 위한 미국위원회로 1942 년 뉴욕시에 설립됨(https://en.wikipedia.org/wiki/AMG_International).

[4]기독교아동복리회(Christian Children's Fund, CCF): 한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전신

두 번째 후원의 주인공 소년은 멀리 떨어진 큰 나라에 있는 자신의 후원자를 잘 돌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에서 보낸 다음 편지에는 또 이런 글귀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두말할 나위 없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소년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최근호는 한국 어린이들의 절박한 곤경을 실었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발견된 작은 소년의 발과 다리가 너무 심하게 얼어 버린 바람에 그의 발과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노인에게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었고, 그래서 그는 스완슨 복음 전도회 (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 주소: 4848 North Leonard Drive, Chicago 31, Illinois)에 편지를 보내 한국 시골에 있는 고아 소년을 후원해 달라며 수표를 동봉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어,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실종된, 튼튼한 한국 시골 소년의 사진이 담긴 크고 두툼한 편지가 왔습니다. 소년은 농장 소년들을 따라다니며 구걸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피난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세 번째 후원어린이 정태일(Jung Tae Il)은 멀리 큰 나라에 살고 있는 양할아버지를 얻었습니다.

정태일의 첫 번째 편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줄 후원자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린 소년의 믿음을 보여주며, "후원자님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로 마무리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한 장의 휴지에다 자신의 오른발 윤곽을 거칠게 그리고, 그 아래에 한국어로 정성이 담긴 서명을 합니다. 그는 후원자의 개인적 이야기, 즉 후원자와 후원자 가족의 사진 또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다음은 정태일 소년이 후원자로부터 받은 3 명의 고아 소년에 관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린 소년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소년의 믿음과 사랑과 의리, 삐뚤빼뚤 써 내려간 손 편지들, 그리고 소년이 전해주는 믿음과 감동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시도만 하면 됩니다.

좋은 친구들의 따뜻한 말

- 멈추지 않는 노래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이 돈을 보냅니다. 한국 고아들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후원하는 고아 박두근(Pak Too Kun) 어린이가 제 삶에 들어온 이후로 주님은 저를 너무나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신체적으로 어린이를 낳고 돌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두근이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사랑은 이 소중한 고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박두근(Pak Too Kun) 어린이를 제 삶으로 데려오셨기 때문에 이전에 외로웠던 저의 삶은 이제 끊이지 않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베테랑 선교사 [5]엘머 보이어(Elmer Boyer)의 글

저는 지난 4 년 동안 순천노회에 보고했고, 19 개의 새로운 교회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같은 좋은 친구가 지난 몇 년 동안 지원한 전도사들 덕분입니다.

- 점자 번역

얼마전 보내주신 책 [6]『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The Christ of the Korean heart)』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책을 선교단체에서 활발히 사역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미 약 5 년 전에 그 책을 사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란색 봉투를 사용해 주세요.

어린이 후원을 위해 편지를 보내실 때는 동봉된 노란색 봉투를 작성해 주십시오. 요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음반을 보내지 않으니 반드시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레코드플레이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이 혜택은 12 월 31 일 종료됩니다. 그러니 직장과 친구, 친척, 주일학교, 성경 수업, 청소년 또는 여성 그룹 등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새로운 후원자 모두 이번 음반에 감격할 것입니다. 어린이를 후원하거나 크리스마스

[5]엘머 보이어(Elmer Timothy Boyer, 한국명 보이열, 1893.7.28~1976.4.15): 미국 남장로교 소속으로 1921 년 한국으로 파송 받았으며, 전라도 동부 지역 및 한센인 사역에 힘썼다(http://www.1907revival.com/bbs/view.html?idxno=3414).

[6]『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The Christ of the Korean Heart)』: 2018 년 한국의 아바서원에서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음(저자: 아치볼드 캠벨(Archibald Campbell, 한국명: 감부열, 1890~1977): 미국 북장로교 소속 한국 선교사로서 1916-1960 년 동안 황해도 및 대구에서 사역했다. 대구 계명대 초대 총장 역임. 다음 문서 참조:
한국기독교사 게시판(http://www.1907revival.com/bbs/view.html?idxno=2943),
구글(https://www.findagrave.com/memorial/207283944/archibald-campbell),
국민일보(http://www.kukmindaily.co.kr/article/view.asp?arcid=0012598900),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0164.html).

프로그램 또는 다른 예배에서 저희 사역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음악을 들려줄 교회나 그룹이 있다면 기쁘게 음반을 보내 드리겠습니다.